

전국 첫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순천형 나눔캠페인 '권분운동'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순천시, 코로나19 극복 발빠른 정책 '눈길'

지역경제 회복·시민생활 밀착형 지원 등 '순천형 뉴딜정책' 준비

순천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생활안정과 지역상공인을 돕기 위해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 빠른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순천형 긴급생활안정 지원'과 '민간주도형 권분(勳分)운동', '농어민공익수당 조기 지급', '순천형 뉴딜정책' 등이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부진, 휴·폐업, 실직 위기에 처한 어려운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5억원을 투입했다.

4인 기준 50만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한 달 사이 470가구가 신청해 이 중 180가구에 대해 소득조사와 마치고 지급을 완료했다.

시가 최초 도입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이달부터는 전남도 생활안정지원비와 통합됨으로써 사업비를 173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준도 완화돼 4만3000세대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고 있다.

순천시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빠른 지급을 위해 인력 보강과 신속한 업무처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순천형 나눔캠페인 '권분(勳分)운동'도 펼치고 있다. '권분'이란 조선시대 고을 수령이 부자들에게 권해 극빈자를 구제했던 나눔 운동이다.

허석 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권분운동'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민들이 기부한 1억원을 재원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생필품 꾸러미인 '권분상자'를 만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00명에게 전달했다.

지난 7일에도 순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27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순천시내 곳곳에서 '권분운동'에 동참하는 기관 및 단체가 줄을 잇고 있어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새로운 순천형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는 시민민생안정 정책과 더불어 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위기 대책마련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1만225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30만원까지 공공요금을 지원하

고 있으며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소상공인 일자 대출, '착한 임대료 운동' 등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 하반기 2만5000가구에 90만원씩(총 114억원) 지급 예정이었던 농업인 공익수당도 4월로 지급을 앞당기고 현금이 아닌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극복도 중요하지만 이후 지역경제 조기 회복과 시민생활 밀착형 지원 방안 마련에 주목해 '순천형 뉴딜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예산을 절감해 최대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신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발굴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를 새로운 경제성장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태 이후 직면할 경제 상황을 미리 준비할 때"라며 "관광객을 다시 끌어 모으고, 지역 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가올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순천형 권분(勳分)운동에 동참, 지난 7일 순천시에 2700만 원을 기탁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 내년 현안 168건 위한 국고 4796억원 확보 총력

허석 시장 주재 네번째 보고회

순천시는 내년 현안 사업 168건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4796억원의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7일 허석 시장 주재로 '2021년 국고지원 현안 사업 추진상황 네번째 보고회'를 열고 지원받아야 할 국비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 사업은 총 168건 4796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일반 현안 사업 79건 3353억원, 국가균형발

전특별회계 사업 58건 688억원, 공모사업 및 생활 SOC 사업 31건 755억원이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30일까지 내년 국고 반영 현안사업을 중앙부처에 제출해야 해 매우 중요한 점검이었다.

특히 코로나19로 부처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을 인식하고 전 부서가 필요 예산을 공유하는 등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순천시가 내년 추진할 주요 신규 사업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국비 73억원) ▲순천시 원도심 복합문화공간 조성 생활 SOC 복합화 사업(61억원) ▲금속 소재·부품 특화지역 조성 사업(1766억원) ▲AI 기반 개인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280억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100억원)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및 관광 도로 확장사업(350억원) ▲순천시 공공 급수 통합지원센터 건립(50억원)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40억원) 등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선암사 입구 주차장 11일부터 연중 무료 개방



순천시가 조계산 도립공원 선암사 입구 주차장을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오는 11일부터 조계산 도립공원 선암사 입구 주차장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조계산 도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와 조계산 도립공원이 보다 친근하고 편안한 생태공간으로 다가 설수 있도록 하자는 순천시와 탐방객들의 의견이 모여져 성사됐다.

지금까지 선암사와 조계산 도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은 선암사 입구 주차장 이용요금을 1일 경차

100원, 중·소형 2000원, 대형 3000원을 부담했다. 선암사에서는 지난 1월부터 순천시민들에 한해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차장 무료 개방은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순천시의 '관광 전남'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전남도와 협력을 통해 시행된 것"이라며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선포한 순천시와 전남도의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생태도시 순천 새 슬로건·캐릭터 공개

슬로건 '人(in) Suncheon'

캐릭터는 '루미똥이'

순천시가 생태·정원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 새 슬로건과 캐릭터를 개발했다. <사진>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개발한 새 브랜드 슬로건은 '人(in) Suncheon'이다.

사람 인(人)을 활용해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다양성 있는 도시임을 부각시켜 표현한 디자인이다. 영문 'in'은 비한자권 국가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말로 '-안에, -속에, -에서'라는 의미로 앞에 힐링·문화 도시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담아 힐링 in Suncheon, 문화 in Suncheon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Suncheon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Sun'과 'on'은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캐릭터 '루미똥이'는 순천시의 시조이자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와 세계 5대 연안습지에 속한 천혜의 생태자원이 순천만습지의 짙은 푸른색을 표현한 것으로, 기존 SNS 캐릭터를 보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높아진 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신규 상징물을 개발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새 브랜드 슬로건 '人(in) Suncheon'



캐릭터 '루미똥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극복해봅시다! COVID-19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작은소리에드워 기울이는 의회 고흥군의회 GOHEUNG-GUNCOUNCIL

http://igoheung.com/